

키워드로 읽는 대중문화사 가이드북

Korean Pop Culture History Through Keyword Guidebook



1. 기초 개념 익히기

교수자: 안승범	
1차시	들어가기
2차시	대중문화란 무엇일까요?
3차시	문화와 문명, 대중문화
4차시	대중문화 속의 미학, 취향, 이데올로기
5차시	정리하기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K-CULTURE-STORY CONTENTS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강의 개요

주차명	기초 개념 익히기	
학습목표	대중과 대중문화에 대한 정의를 파악할 수 있다.	
강의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비디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PPT슬라이드와 오디오 <input type="checkbox"/> 인터뷰 촬영 <input type="checkbox"/> 대화 촬영 <input type="checkbox"/> 현장 촬영	
강의언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어 <input type="checkbox"/> 영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막언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어 <input type="checkbox"/> 중국어 <input type="checkbox"/> 수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프랑스어)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들어가기	주차 소개 주차 핵심단어 소개
2	대중문화란 무엇일까요?	BTS의 팬클럽 A.R.M.Y를 아십니까? 대중과 공중은 다르다. 대중은 민중과 다르다. 그렇다면 대중의 진짜 개념은?
3	문화와 문명, 대중문화	문화의 개념은 포괄적이다.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문명은 문화의 물질적, 제도적, 사회적 조건이자 토대다. 대중문화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4	대중문화 속의 미학, 취향, 이데올로기	학교에서 배우는 '미학'이란? 대중적인 문화콘텐츠의 미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대중문화에서 취향이란? 오늘날 취향공동체의 영향력 대중문화 속 이데올로기 어떻게 향유해야 할까? 문화의 시공간적 배경 한국의 근현대사 키워드로 읽는 대중문화사 과정 톺아 보기
5	정리하기	오징어 게임 열풍 다음 주차 소개
학습 활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영상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읽기 자료(pdf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퀴즈 등 연습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론/토의 <input type="checkbox"/> 시연 및 현장 방문 <input type="checkbox"/> 실습(실험, 시뮬레이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 과제 <input type="checkbox"/> 협력 과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유튜브 영상 링크 제공 등)	



1. 기본 개념 익히기

1차시 | 들어가기

한류와 K-콘텐츠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배경과 기원을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찾아보는 강의, 키워드로 읽는 대중문화사. 저는 수업을 맡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안승범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를 둘러싼 기초개념들을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대중문화에 대한 개념과 대중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이론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질문은 '과연 대중문화란 무엇'이며,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대중', '문화', '문명', '대중문화', '미학', '취향', '이데올로기'입니다. 앞으로 10주차 강의를 이어질 텐데요. 오늘 수업은 조금 딱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념을 익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개념을 잘 익혀놓으면, 2주차부터 10주차 강의하는 동안에 이 개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 공부하면 앞으로 조금은 더 깊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차시 | 대중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차시는 '대중이란 무엇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중의 개념을 바로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살갑게 이 대중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BTS의 팬클럽인 아미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개념 중에 취향 공동체로서의 대중,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바로 이 아미는 '취향 공동체로서의 여러 속성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미는 '취향 공동체로서의 대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국가, 광범위한 어떤 연령층, 광범위한 어떤 나라에서 이 아미의 구성원으로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특징을 다 종합해보면, 첫 번째로 국적과 신분, 나이, 인종, 성별, 계급,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을 편의상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에 근거해 봤을 때 어떤 불균질한 개인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K-pop 콘텐츠의 팬들을 보면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이렇게 조금 가까운 나라들에 두터운 팬층이 형성돼 있거든요? 또 나이대로 보면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층의 팬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남성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여성 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미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큰 공연을 했지만,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남아메리카 등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 아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연령대도 조금 다양한 거 같아요. 30대 이상의 팬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여성 팬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남성 팬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서로 어떤 하나의 의식화된 지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말하면 이들은 익명의 개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익명의 개인 간의 집합이죠. 아마 BTS라는 구심점이 없었다면, 그들은 서로 경험을 교환하거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팬클럽'들은, '팬클럽이 형성된다.' 또는 '팬덤이 형성된다.' 라는 것은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요. 라디오라든지 TV 또는 인터넷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성의 방식이나 과정이 대단히 느슨하죠. 일정한 계급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심취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미 역시 TV를 중심으로 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또 각종 뉴미디어, 특히 SNS 플랫폼들을 통해서 그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미를 통해서 취향 공동체의 어떤 속성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대중의 개념과 아주 흡사한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대차, 대조를 해보면서 대중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과 공중, 비슷한 말 같죠? 그렇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공중도 조직되지 않은 개인들의 집합을 말하죠. 그러나 공중은 '사회적 공론장에 참여해서 어떤 이슈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공공이익의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공중은 대중보다 더 공익을 위해서 의식화된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회적 개인이라는 특징이 있죠. 대중과 비슷한 개념 중에 민중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민중은 프랑스혁명 이후에 역사적, 이념적으로 규정되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피지배층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소외 계층을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민중은 좁은 의미로 보면 의식화되고 실천적인 주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의 민주화 역사는 굉장히 지난한 역사를 밟아왔는데요. 권력의 부당한 지배나 통치, 그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 맞서서 분열이 일어나 싸웠던 계층들이 있거든요? 물론 전 계층에서 그 역사에 참여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주력을 이룬 그 사람들을 민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민중과 대중은



조금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의 진짜 개념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중 음악사를 연구하는 장유정 선생님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지위나 계급, 학력, 재산 등 사회적인 어떤 속성, 또는 사회적인 기준들을 초월해서 뭉친 불특정 다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중은 '불균질한 어떤 익명성의 집단 또는 자율적인 집단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여러분, 대중에 대해서 한 번 피상적으로 이해해봤는데 구별이 조금 되시나요? 앞으로 대중의 개념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내가 대중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차시 | 문화와 문명, 대중문화 개념을 알아볼까요?

이번 차시는 문화와 문명, 대중문화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문화의 개념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화연구의 권위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문화의 개념이 '옳아.', '맞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어떤 문화의 개념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문화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어원을 따져서 한 번 이해해보는 그런 경로를 보통 밟거든요? 이 문화의 개념은 '경작하다', '재배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콜로레'라는 이 어원을 보통 말합니다. 영어에서도 농업, 즉, 'agriculture'라는 단어 안에 이 컬처가 들어가 있죠. 생산하고 기른다는 뜻이죠. 물론 이 말은 오늘날의 문화의 개념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하고 기른다는 말은 '자연 상태에 대한 변형 또는 변용 또는 모방과 창조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말은 그 반대말로 '자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야만이라는 말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의 개념은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문화는 역사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또는 예술과 종교, 풍속 이것을 모두 포함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방금 열거한 이 모든 개념들이 '생산하고 기르다'라는 말속에 또 포함될 수가 있죠. 대중문화 연구자 김창남 선생님은 '이를 포괄해서 대중문화가 세 가지 속성을 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매스미디어 산업에 의해 생산되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품으로서 유통된다.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문화가 첫 번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대중의 익숙한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수용되는 일상, 그래서 일상으로서의 문화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세 번째는 다양한 정체성이 표현되고 갈등하는 이런 정치의 장으로서의 문화. 이 개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주차부터 10주차까지 진행되는 수업에서 대중문화, 이 개념이 계속 반복될 텐데 방금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속성 중에 하나의 속성으로 그 개념이 쓰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억해두세요. 이제는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한 번 배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화가 인간의 사고와 표현, 심리적 능력의 정수라고 말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매튜아놀드라는 사람인데요. 매튜아놀드는 현대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도덕이 무너졌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전통문화, 특히 고급 문화를 계승하고 알려야 하며 저급한 대중문화의 확산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 같은 사람도 대중문화와 연결된 소비주의를 비판하거든요. 문화산업에 귀속된 순수예술의 영역들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술의 자율성이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문화산업 안으로 포섭되어 들어간 예술 때문에 이 대중이 적극적인 사유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죠. 이들 말이 일면 다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수준 높은 교양 또는 고도의 어떤 정신적인 성취 또는 높은 예술적 가치, 이런 것을 굳이 따지면서 더 옳은 것, 더 우월한 것을 나누는 태도. 이것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취향에 따른 수용과 향유, 그 자체로 대중문화로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에드워드 실즈나 허버트 갠스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문화 다양성 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원주의 문화론에 기초해서 대중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관점을 취하든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대중문화 안에서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러분만의 관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화와 비슷한 개념인 '문명'과 '문화'를 나눠서 생각해보며 그 사고를 대중문화까지 연결시켜 보죠."문명'은 문화와 굳이 비교하자면 '물질적, 제도적, 사회적 조건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는 대체로 '인간의 정신작용의 산물로서 사회적 상징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기호, 가치, 어떤 심미적 결과물로도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손쉬운 사례가 예술이예요. 우리가 '헤밍웨이의 소설을 읽는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읽는다'라고 할 때 '그 소설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가치, 예술적인 성취를 우리가 소비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 안에 들어 있는 어떤 고도의 정신작용을 우리가 배운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명의 개념을 여기서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헤밍웨이의 소설이든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든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 문화의 산물, 예술적 가치를 가진 소설책도 유통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출판 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공장이 있어서 인쇄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서점도 필요하겠죠. 이런 문화의 물질적, 제도적, 사회적 조건이자 토대를 따로 떼놓고 보면 문명의 어떤 개념을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문화와 문명 개념은 딱 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어떤 총체적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명과 문화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는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문화는 가치, 특히 정신적 가치나 현상을 이야기하고 문명은 사실, 특히 물질적 기반과 토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어떤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대중문화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대중문화의 형성이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대중문화의 성격을 세 가지로 구분했던 김창남 선생님의 어떤 내용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들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대중문화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첫 번째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연결되는 시장에서, 특히 상품 혹은 콘텐츠를 둘러싸고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문화 형성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와 법, 정책 등에 의해 규제되는 일상의 관습과 정서에 의해서 형성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과 매체의 변화에 의해 새롭게 재편되는 향유의 장에서 형성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이념과 정체성의 차이, 정치적 지향과 취향의 충돌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 대중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정리가 다 안 되셨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점점 더 선명하게 이 개념들이 자리잡힐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4차시 | 대중문화 속의 미학, 취향, 이데올로기

이번 차시는 대중문화 속의 미학, 취향, 이데올로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미학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미학이라는 말은 어디에다가 갖다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드라마의 미학,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소설의 미학,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미학이라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예술일 때 많이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미학은 조금 고정된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에서 말하는 미학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급문화를 지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의 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도르노라는 사람은 진지한 음악, 곧 본격음악과 대중음악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소비문화를 진작시키는 문화산업의 속성, 소비문화와 결탁한 문화산업의 속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중문화의 콘텐츠들을 조금은 더 우려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중음악은 상투적이고 사이비 개성을 심어주고 또 너무 관능적이다. 그리고 유아적이면서 유사 체험을 주는 방식으로 쾌락을 조장한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적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여기에도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를 많이 보는 사람에게 뮤지컬은 조금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또 요즘 아이돌들의 음악, 뮤직비디오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읽힐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미학적인 격차가 있다거나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의 격차(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논점들이 숨어있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외와 같은 프랑스 사회학자는 한 사람의 사회문화적 위치와 그의 예술적 취향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배움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리는 예술적인 환경과 또 부유하게 태어나서 학식도 높고 그다음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래서 사회계층 면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로 향유하는 예술적 환경. 이것은 낙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부유하고 학식도 높고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예술적 환경이 더 좋은 예술, 더 우월한 예술이라고 평가되거나 그렇게 또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학적 판단의 기준에 절대적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미학적 가치를 고정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차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가 갖고 있었던, 또는 기성세대나 기득권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예술적인 심미안을 계속 반복하고 그것을 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예술이 태어날 수 있고 기존에 어떤 문법이나 어떤 가치 기준에서 벗어난 예술들이 새롭게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문화의 장 안에서 경쟁이 이뤄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술적인 가치에 대한 위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굳이 이것을 위계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다양성의 관계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적 기준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생산,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계층 (그들)의 시각이 더 옳은 것, 더 바른 것으로 인식될 확률이 큼니다. 그래서 대중예술 미학의 바람직한 지표라는 것은 항상 새롭게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문화 콘텐츠의 미학은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죠. 고급문화를 통한 교양을 강조했던 매튜 아놀드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마 괴테와 셰익스피어가 최고의 예술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쿤의 노래, 누군가에게는 스피버그의 영화, 또 누군가에게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인생의 어떤 시각을 바꾼 위대한 작품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까지 굳이 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진정성'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진정성'이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정의 내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앞으로도 연구가 되어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 연구자 중 한 사람인 박성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중문화에 대한 진정성을 연구하면서 대중예술의 미학이라는 것의 그 평가의 출구가 진정성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대중이 해당 문화콘텐츠를 향유하는 중에 나는 진정성의 경험을 했어, 나는 거기서 진정성을 느꼈어"라고 말한다면, 그 경험의 가치를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조금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여기서부터 대중 예술 미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나 이런 사람들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부르거든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비판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발터 벤야민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하고 비판이론과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르크하이머나 아도르노 같은 경우에는, 문화산업이 소비주의를 부추기면서 대중에게 고급예술에 대한, 더 나은 예술에 대한 어떤 감각을 훼손시킨다고 비판을 하는데, 발터 벤야민도 큰 틀에서는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복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히 사진이나 영화가 도래하면서 그 기존의 예술작품, 1회성, 원본성을 갖고 있었던 그 예술작품의 아우라가 상실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발터 벤야민은 조금 미묘하게 다른 관점도 있었습니다. (발터 벤야민 같은 경우는) 희극 배우이자 또 코미디 영화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찰리채플린과 그다음에 피카소, 여러분 피카소는 잘 알죠? 20세기에 운동으로서의 모더니즘을 이끌었고 입체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새로운 회화의 유파를 만들었다고도 평가를 받죠. 그런데 이 피카소나 찰리채플린을 수평선에 놓고 같이 비교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터 벤야민은) 예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수용방식, 향유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채플린이나 피카소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예술, 이 대중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엇인가 저급한 거 같고 뭔가 아류인 거 같고 실제 원본이 아닌 거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같이 놓고 연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놓여있는 어떤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 취향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현대 사회는 다양한 취향공동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용어가 있지만, 다원성과 다양성의 시대다'라는 표현도 아주 적절하게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개념입니다. 타인의 취향에 대한 존중과 자기 취향에 대한 자율적 추구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회가 현대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취향 공동체"란 '공통의 취미나 기호를 향유하는 집단'으로, 대중문화는 매체, 장르, 스타, 개별 콘텐츠에 대한 복합적인 취향 공동체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주차 강의 맨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아미 같은 경우를 떠올려보면 좋죠. 미셸 마페졸리는 "현대사회는 계급이나 신분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집단 간의 종적 구조, 그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취향에 의해 구분되는 소규모 집단의 횡적 구조, 이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죠. 미셸 마페졸리는 "부족의 시대"라는 책에서 신 부족 주의'라는 표현으로 방금 전의 현대사회의 변화상을 읽어냅니다. 무질서한 듯 보이지만 유희적이고, 아이들이 추구하는 순전한 재미 등으로 충만한 취향공동체들이 창조적 힘을 발휘할 때, 현대사회가 훨씬 더 풍성해 질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취향공동체의 영향력이 오늘날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취향공동체는 때로는 재기발랄한 포래문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영화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 새로운 감수성을 만들어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 그들의 적극적인 향유 과정에 따라서 사회구성원 전체에 어떤 창조적인 영감을 불어넣기도 하죠. 미학적으로 보면 칸트가 말한 공통감의 주체적 발현



을 통해서 대중문화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취향공동체는 거기에 일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대중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적극적인 향유자들은 취향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의식, 자신의 어떤 기호, 이것들을 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디지털 소통채널이 엄청 늘었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다양한 취향공동체들이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표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한 번 배워보겠습니다. 대중문화는 이데올로기의 경쟁과 착종으로 나타나는 장소'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르크스 이후에 여러 학자들은 자본가나 지배 계급에 의해서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생산되고 유포되면서 그 사회의 어떤 지형도를 바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월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계급에 의해서, 그 사회의 어떤 풍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루이 알튀세르의 경우에는, '지배 계급의 어떤 집단적인 이데올로기와 피지배 계급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구별된다'라는 것에서부터 그의 학술적인 논점은 시작됩니다.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조직이나 기구들에 의해서 더 조직적으로 생산되고 유포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죠.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때로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매스미디어는 대중들에게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하게 더 옳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진실한 것, 더 선한 것 등을 정형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선악판단, 가치판단, 진위판단을 할 때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는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죠. 그 때문에 비평의 건강성, 또 담론장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중문화 향유자의 통찰력이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도 '이데올로기란 집단을 결속시키는 사고와 의식'이라고 정의하면서, "사회 내 집단들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경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중문화의 장은 여러 이데올로기가 보이지 않게 투쟁 및 경쟁하면서 서로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경쟁의 장소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이것을 '헤게모니 갈등'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주 간단한 실례를 들자면, 저의 세대 또는 저보다 조금 이후 세대는 HOT와 젝스키스를 좋아하는 팬들끼리의 그 경쟁을 대중음악씬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야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보면, 이 대중문화의 장도 이데올로기간의 투쟁과 경쟁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데올로기간의 갈등, 헤게모니 갈등 이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냉전 체제가 끝났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아직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류를 통해서 알게 된 한국은 사실상 남한, 남쪽에 한국을 말하고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독재 체제로 오랫동안, 백두산 혈통이란 말도 쓰는데요. 그 혈통 중심의 일국적 폐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영화계에서 <연평해전>이라든지 <한반도>라는 제목의 영화들이 개봉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북한과 한국 사이에 어떤 갈등 또 한국을 중심으로 주변의 국가들과의 긴장관계를 다루는 영화였어요. 이런 영화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들을 놓고 보통 한국에서 진보적인 세력과 보수적인 세력 사이에 해석의 다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좋게 평가하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다.' 라고 평가하는 쪽과 그 영화를 '이것은 수준 이하의 작품이야.' 라고 평가하는 쪽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때의 극명하게 갈린 그 기준점 안에는 이데올로기 갈등의 노선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중문화를 어떻게 향유해야 할 것인가?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대중문화의 개별 영역에 반영된 비합리적인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향유자, 생각하는 취향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도 필요합니다.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사람들 또는 폄하하는 사람들은 대중문화 안에 상투적인 클리셰가 너무 많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투적인 클리셰를 통해서 그 수용자를 수동적으로 만들려는 기획자, 생산자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취향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어떤 창작 진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향유자들이 가려낼 필요가 있지요. 또 기존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방을 통해서 계속 흥행성을 높이려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요. 이런 기획들은 우리가 점검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기획과 생산들을 가려낼 수 있는 시선들을 그 대중들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문명은 새로운 대중문화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향유자, 적극적인 취향 공동체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가치 그리고 더 바람직한 이데올로기를 품은 문화콘텐츠가 만들어지는데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더 새로운 콘텐츠, 더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지금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고자 마련했습니다. 대중문화란 '대량생산된 상업적인 콘텐츠가 대량소비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수용될 때 형성되는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중은 '그러한 문화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불균질한 익명성, 자율적인 집단성을 가진다'고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이 첫 강의인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10주차에 걸쳐서 강의를 계속 진행될 텐데, 특히 해외에 있는 수강생들 중에는 '대중문화'의 개념이나 문화', '문명', '미학', '취향', '이데올로기' 이런 개념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한국 근현대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해외의 개념들, 해외의 인문학적 개념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 개념이 어디에서 솟아올랐는가, 그 문화의 시공간적인 배경을 잘 몰라서 인문학적으로 해외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주차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국 근현대사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 그것이 해외 수강생들을 위해서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대중문화의 변화 과정을 요약해보자 해서, 제가 2주차부터 10주차까지 진행될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미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20세기를 통과하는 중에 가장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를 대중문화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기간을 나누어서 해당 시기의 키워드를 미리 한번 던져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은 자국의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한국은 20세기로 전환되는 그 시점까지 조선왕조라는 왕조국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세워진 조선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섬들, 도서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단일국가체제로 유지가 되었고, 성리학, 더 쉽게 표현하면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전제군주정의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혈통 중심의 왕권국가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씨로 치면 이씨 집안의 왕족 혈통이 계속적으로 500년을 다스렸다고 볼 수 있고요. 외관상으로는 양인과 천민, 이 두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네 계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대중문화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왕조의 후반부,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특히 지방의 관리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준 이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권력층은 주변 국가와 적극적으로 통상수교를 맺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고 바깥으로는 폐쇄국가의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문물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중국은 청나라였는데 그 청나라와의 사회경제적인 수준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중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내부적으로는 봉건주의 통치에 저항하는 민중의식이, 권력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2주차의 강의가 사실 시작됩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민족의 발견과 대중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그 시기를 저는 1894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이때는 조선시대의 마지막 1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한국에서는 '개화기'라는 표현으로 부르는데요. 일본 등으로부터 서구 문물이 천천히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충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문이 생기고, 잡지가 생기고, 기차가 출현하고, 유성음반이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국가의 경계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국가의 바깥 풍경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조선의 풍경을 상호 대차, 대조 하면서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민족의 개념도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대중문화가 본격화되었다기보다는, 그 가능성과 조짐이 생겨난 시기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910년이 되면 조선은 일본에 강제 병합됩니다. 조선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수난이 닥친 셈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을 통해서 서구 문물이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서구로부터 직접 들어왔다기보다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경유의 과정에서 서구의 문물이 굴절되어 들어왔다" 이런 표현도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문화가 일제강점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910년부터 벌어진 현상이고 이게 1931년까지, 20여 년 동안은 그런 과정이 계속 가속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백화점이 탄생하고 라디오 방송이 출현하게 됩니다. 또 상설 영화관이 탄생하는 등 새로운 취향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규모에 있어서는 취향 문화의 규모들이 컸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스미디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는 매스미디어가 완전히 정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향 문화의 규모는 작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향유 공동체가 생겨난 시기라고도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1931년부터 1945년은 일제강점기 후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 일제의 강제 점령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후반 15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딱지본 소설이 범람하게 되고요. 새로운 소비문화가 아래에서부터 형성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인데요. 트로트가 정형화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연극과 음악 등 상당수의 대중예술 영역에서 신판 '라고 불리는 과장된 감상주의, 과잉의センチ멘탈리즘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는 대중문화가 당시에 사회적 상황과 연동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45년이 되면 광복 또는 해방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다시 주권을 한국 사람들이 되찾게 되죠. 그런데 1945년의 광복이라는 것이 조선 민족, 그러니까 피식민 상태에 놓여 있었던 한국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된 사건이라기보다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들이닥친 사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를 다시 세우야 되는 그런 책무가 한국 사람들에게 주어졌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새로운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아주 격동의 세월을 한국 사람들이 보내게 됩니다. 아마 해외에 있는 수강생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이 한반도에 분단이 시작된 시점이 광복이 일어난 바로 직후부터입니다. 더군다나 남한과 북한은 1950년에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 불리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양자가 이렇게 전쟁까지 치르다 보니까 그 상처가 너무 깊어져서 분단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한에서는 미군을 통해서 서구 문화가 유입되는 계기가 형성되는데요. 이것이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구 문명이, 미국의 문명이 미군을 통해서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 살았던 한국인의 내면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한 시기라고 이 시기를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1961년부터 1972년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라디오 문화가 전성기를 이룹니다. 또 TV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와 TV의 보급 속도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매스미디어다운 매스미디어가 정착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 문화가 확대되죠. 이 시기, 1961년부터 72년까지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되어 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중문화의 개별 영역이 안정화 또는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당시 주한미군 부대를 미8군이라고 불렀는데, 이 미8군 출신의 음악인이 한국 대중문화의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된 시기도 바로 이 시기고요. 한국 영화사를 보면 (이 시기가) 1차 전성기 또는 르네상스 시기라고도 불리는데, (영화산업이) 활성화가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인상적인 시기였다고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1972년부터 1980년까지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영구 집권의 의지를 표출한 시기입니다. 사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에 민주화의 열망을 담은 4·19, 그러니까 4월 19일에 벌어진 민주화 운동인데요, 이 민주화 운동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잡게 되는데, 바로 그 이듬해 5월 16일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집권하기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은 1979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정권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72년부터 80년까지의 상황은 박정희 정권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억압적인 통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대중문화는,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어떤 식으로 응전을 해갔을까요? 사실 이 시기에는 대중문화가 너무 많은 압박을 당했고 또 검열을 당해서 대중문화의 침체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중문화 안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그래도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 이런 걸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문화가 아래서부터 움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압적인 시대라고 하더라도 또 검열과 금기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아래서부터 움뜨이는 대중문화의 흐름들을 정치사가 압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색적인 청년 문화로서 이 시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80년부터 1987년은 조금은 주목해볼 만한 역사적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년 동안 아까 이어졌던 박정희 정권은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에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새로운 군사 정권을 창출합니다. 시민을 학살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죠. 전두환 정권은 3S 정책으로 대표되는 유화 정책을 쓰면서 자신의 정권을 시작하는데요. 3S 정책이라고 하면 Sports, Sex, Screen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을 향할 수 있는 백성들의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대중문화의 외곽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양산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왜곡되는 상황들도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있죠. 이 시기 역시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논점이 많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시간은 형식적인 민주화와 내용적인 민주화가 같이 진행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냉전시대가 종식되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변화가 바깥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금지됐던 대중예술 작품들이 수용자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고도의 상업화 전략에 따라서 대중문화 세부 영역이 더 갈래화 됩니다. 한국은 1997년에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는 국가부도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87년부터 97년 사이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벌어졌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이 시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대중문화가 재편되는 데 (있어서) IMF 국제 금융 사태가 상당한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1997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은 한국 사회가 IT 강국으로 또 디지털 문화를 고도로 성장시킨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이 아는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한류는 아시아의 가까운 국가들, 그러니까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류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권을 넘어서 미국, 유럽, 전 세계로 한류의 열풍이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K-culture라는 용어, K-contents라는 용어들이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하죠. 세부적으로 보면 한류 1.0 시대부터 한류 4.0 시대까지 그 안에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 한류라는 게 아주 미세한 변곡점들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업을 여기까지 따라오신다면 한국 대중문화의 유장한 흐름 안에서 오늘날의 한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류의 수용과 향유에 있어서 과도한 내셔널리즘이 작동하는 그런 풍경도 자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마지막에 가서는 상생 한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19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대중문화의 변화를 요약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한류를 좋아하는 해외 수강생들도 한국의 지난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이 수업이 낯설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요. 제가 지금 방금 요약해드린 한국 근현대사와 그 근현대사 안에서 대중문화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따라오신다면, 그래도 좀 흥미 있는 지점들을 찾으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대중문화란 그 나라의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와 대화하면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가 국가와 국가 간에 연결되어 있고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문화라고 해서 아주 특별하고 개성적이고 고유한 풍경만 있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 나라의 대중문화사와 대차, 대조해 보면 흥미로운 유사점과 차이점들이 함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기심을 갖고 따라 오신다면 얻어갈 것이 있는 그런 수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5차시 | 정리하기

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좀 딱딱하게 진행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해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이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한국의 대중문화사를 연대기적으로 발발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 한국의 K-콘텐츠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콘텐츠 중의 하나는 아마도 '오징어 게임'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오징어 게임 열풍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세계 곳곳에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놀이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또 수용돼서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달고나 뽑기 게임' 이런 등등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멈춰서서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진정성이 과연 무엇이였을까?', '한국인에게 진정성으로 다가오는 그 무엇을 도대체 세계인이 다 느꼈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종, 문화, 국적, 나이가 다 다른 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어떤 취향의 어떤 문화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유포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관점들이 또 제안되고 갱신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업을 열심히 쫓아와준 사람이라면, 수강생이라면, 여러분이 이 오징어 게임을 놓고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경로를 찾으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날 한류 열풍의 기원을 찾아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K-콘텐츠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한국의 대중문화사의 중요한 사건이나 장면 속에서 그 기원을 찾아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꼭 언급돼야 되는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장면들, 새롭게 어떤 수용되고 있는 문물들,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기술들, 새로 등장한 매체들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연대기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이 진정한, 그래서 출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시간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 대중문화가 형성되기 직전의 풍경들, 직전의 모습과 상황들을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활동

■ 학습활동 1: 퀴즈 (2점)

1. 대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점) ()
 - ① BTS 아미는 적극적인 취향공동체로서 '대중'의 사례이다.
 - ② 대중은 공중과 같은 개념이다.
 - ③ 대중은 다중과 다른 개념이다.
 - ④ 대중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불균질한 익명성, 자율적 집단성을 특징으로 한다.
2. 문화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점) ()
 - ① 문화의 반대말을 '자연' 또는 '야만'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 ② 문명은 문화의 물질적, 제도적, 사회적 조건이자 토대이다.
 - ③ 문화는 대체로 인간 정신작용의 산물로, 사회적 상징과는 상관없다.
 - ④ 에드워드 실즈나 허버트 갠스 등은 문화적 다양성을 주장한다.

■ 학습활동 2: 성찰일지 (2점)

- ▶ 한국 대중문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주세요. (1점)
- ▶ 자국 내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대중문화는 무엇인가요? 관심을 가지고 찾아 보세요. (1점)

■ 학습활동 3: 토론 (2점)

- ▶ 대중문화에서 대중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학습활동 4: 학습자료

① 논문/기사

▶ 다음 논문과 기사를 읽고 '취향공동체'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취향공동체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논의 - 방탄소년단 팬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1호, 2021.

- 매거진 한경, 취향 공동체, 놀고 즐기며 길을 찾다, 2018.03.26.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101205076c>

② 영상

▶ 유럽 내 한류 열풍과 관련된 영상을 보며, 유럽 내 케이팝 및 한류의 열풍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류 열풍의 중심! 파리 케이팝 카페 [글로벌코리아] / YTN korean:
<https://www.youtube.com/watch?v=4WL3cU6n1ak>

- 독일 클럽서 K팝 '떼창'...세계 속 '주류가 된 한류' / JTBC 뉴스룸:
<https://www.youtube.com/watch?v=DolkV36DxQ4>

- 파리 오징어게임 열풍 관련 뉴스(Squid Game fever is real in Paris!):
<https://www.youtube.com/watch?v=YFxcAZTvazk>

▶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요절의 탄생이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유산채널, 직지, 활자의 시간여행|5부 인쇄혁명을 주도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https://www.youtube.com/watch?v=PNvi3cre5bU>

.....

<퀴즈 정답>

1. ②, 2. ③



Week 1. Basic concepts about Korean pop culture

The First Session | Introduction

The Korean wave and K-contents are very popular. This lecture, Korean pop culture history through keywords, is to figure out the origin of the Korean wave and K-contents through Korean pop culture. I am Prof. Ahn, Soongbeum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yunghee University. Today you will learn basic concepts about Korean pop culture. Today's goal is to figure out the conceptions and many important issues about Korean pop culture, and theories from these various aspects.

The key questions of today are, 'what is pop culture' and 'what should we study'. The keywords for today are, 'general public', 'culture', 'civilization', 'pop culture', 'aesthetic', 'preference' and 'ideology'. There will be 10 weeks of lectures. I think today's lesson might be a little difficult. It's because you will learn about concepts. However, when you learn the concepts today, then you will see these concepts here and there from week 2 to 10. So I hope you think, 'if I study hard today, then I can understand better in the future', and follow the lesson well. I hope you enjoy the lesson.



The Second Session | What is the general public?

The title of this session is 'what is the general public?' Before I explain about the concept of the public, I'd like to introduce 'A.R.M.Y', which is a fan club of BTS, to explain the concept of the public easily. Among the concepts of the general public, the preference community is very important. I think A.R.M.Y can show 'many attributes as the preference community'. I used the expression for A.R.M.Y as 'the general public as the preference community'. However, a very wide range of countries, age groups, and a wide range of countries participate as members of A.R.M.Y. If you put all the characteristics together, first, there are standards for convenience to divide human beings, including nationality, status, age, race, gender and class, based on these criteria, you can see that the public as preference community is a set of heterogeneous individuals. If you look at the fans of ordinary K-pop contents, there is a strong fan base in Korea, Japan, China and Southeast Asia, which is close to Korea. Also if you look at age demographics, there are many young fans, mainly in their teens and 20s. And in particular, male idol groups have a lot of female fans. However, A.R.M.Y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Recently, BTS performed a big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but people from a wide variety of countries, including Europe and South America are participating as A.R.M.Y. And I believe fans are not only various in nationalities, but also diverse in age groups. Fans in their 30s and older also seem to be numerous. It's difficult to say fans are only female. There are many male fans. What they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not a group of people who have anyone conscious orientation. In other words, they are anonymous individuals. To be exact, it's a collection of anonymous individuals. Perhaps without the centrality of BTS, they would not have had the opportunity to exchange experiences or talk with each other. Historically, these 'fan clubs' have certain characteristics in that 'fan clubs are formed' or 'fandoms are formed'. They are formed based on mass media, such as radio, TV, or the internet. However, the way or process of formation is very loose. It's not formed based on class. It's not a community for people who are fond of a specific ideology. A.R.M.Y has been formed around TV or YouTube, the spread has progressed rapidly through new media, especially SNS platforms.

We indirectly checked the properties of the preference community through A.R.M.Y. Let's take a closer look. I am going to compare similar concepts with the general public, so that I can define the concept of the general public. General public and public, isn't it similar? However, this is different. The public refers to a set of individuals that are not organized. However, the public is characterized by 'people who participate in social public hearings and share certain issue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y are working as rational critics. It is very important that it is a public interest perspective. The public are people who express rational opinions from a public interest perspective. Therefore, the public is characterized by being a social individual participating in a conscious



public sphere for the public interest more than the general public. Among the similar concepts with the general public, there is people. People were historically and ideologically defined after the French Revolution. In general, the ruling class is often referred to in term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r those who are underprivileged. So, in a narrow sense, people could be conscious and practical subjects. 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in Korea has been very strong. There are classes that fought against unfair domination or governance of power an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course, it can be said that all classes participated in history, but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people who achieved the main focus are referred to as 'the people'. From this perspective, you can see that the people and the general public are a little different. Then, what is the real concept of the general public? To answer this question, Jang Yoo-jeong, who studies pop music history, says, 'the majority of people who make up modern society is characterized by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In addition, it can be expressed as 'an unspecified majority united beyond certain social attributes such as status, class, educational background, property or social standards'. So I think we can say the general public can be explained as a group of inhomogeneous anonymity or an autonomous group'. Everyone, we tried to figure out the idea of the general public superficially. Can you tell the difference? Since the concept of the public will be repeated in the future, you can feel that "Oh, I'm living as a member of the general public".

The Third Session | Concepts of culture, civilization and pop culture

This lecture is to learn about the concepts of culture, civilization and pop culture. The concept of culture is very inclusive. So, no matter how much one is an authority in cultural research, it is very difficult to say the concept of culture is 'correct' or 'right' directly. I am going to introduce the common concept of some forms of culture. In the West, when people say 'culture', they usually take a path to understand the etymology. The etymology of culture is from 'color', which means 'to cultivate, rule' in Latin. In English, 'agriculture' is including 'culture'. It means to produce and cultivate. Of course, it does not fit the concept of culture today. However, I think you can find very important hint in this word. For example, to produce and cultivate means 'it includes the act of transformation or the imitation and creation of the natural state'. Therefore, the opposite word of culture is nature. Wild can also be used to describe this state. That's why you hav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culture inclusively. Traditionally, culture can also be defined as historically including any politics or economies created by humans, laws and institutions, or art, religion and customs. When you think about the concepts above, 'producing and cultivating' includes all these concepts. Pop culture researcher, Kim, Chang-nam said that pop culture has three characteristics which include all these concepts. The first is that pop culture is produced by the mass media industry and distributed as a product to a large number of consumers. So, culture as a product is the first attribute. The second is we should pay attention is daily life, which is repeatedly accepted in the familiar life of the general public, which is culture from daily life. Third, culture as a place of politics where various identities are expressed and conflicted. This concep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is concept of pop culture will continue to be repeated in class from Week 2 to 10, and is highly likely that the concept used is one of the three characteristics I just mentioned. Please keep it in mind. Now I think it's time to learn the various perspectives about culture. First, there is a view that culture is the essence of human thinking, expression and psychological ability. The representative scholar who supports this perspective is Matthew Arnold. Matthew Arnold is worried that morality has collapsed as modern society transitions to an industrial society. He states that confusion is being created. So he suggested that traditional culture, especially high forms of culture should be inherited and announced, and the spread of low-level pop culture should be regulated. Theodor Wiesengrund Adorno and Max Horkheimer, who you know well, criticize that consumerism linked to pop culture. They look at the areas of pure art belonging to the cultural industry with great sadness. They worry a lot about whether the autonomy of art would be destroyed. And they argued that the public cannot think actively because of the art that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is cultural industry. Parts of their statements are right. Nevertheless, if you accept their thinking as is, there is a risk of falling into elitism. Considering high-quality liberal arts, high-level mental achievement, high artistic value, but if you



have an attitude to judge what is right, what is superior, it is not always right. Second, acceptance and enjoyment depends on preference, and there is a perspective that it should be viewed as popular culture in itself. Edward Albert Shils and Herbert J. Gans support this opinion. They are cultural diversityists. So they insisted that looking at popular culture based on the pluralistic cultural theory is needed. I mentioned two perspectives, it's not about right or wrong whether you take any of them. However, it is highly likely that you are living as a member of popular culture.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have your own perspective.

Now, let's think about 'civilization' and 'culture', which are similar concepts to culture, and connect to popular culture. Compared to culture, 'civilization' can be 'material, institutional, social conditions and foundations'. As a result, 'culture' is often regarded as 'a social symbol and a product of human mental action'. You can understand the culture with symbols, values and any psychological outcome produced through human activities. So art is the easiest example of understanding culture. When we say, 'I am reading Hemingway's novel', or 'I am reading Victor Hugo's novel', it means that we consume the artistic value and accomplishment of the novel. It also means that we learn a high level of mental action in the novel. But if we think about the concept of civilization here, whether it's Hemingway's novel or Victor Hugo's novel, it's the product of this culture which is considered to have high artistic value, novels with artistic value must have a distribution and publishing system, and of course, there should be a factory, so a printing press must be operated. Also, bookstores are needed. If you look at the material, institutional and social conditions and foundations of this culture separately, you can think of a certain concept of civilization, the concept of culture and civilization may not be exactly apart, but rather connected concepts. In conclusion, I think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civilization and culture because it shows a certain way of life. In some cases, it is almost synonymous. However, if I have to distinguish it, culture is about values, especially mental values or phenomena, and civilization actually as a material foundation and base in particular will help you grasp this concept. A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popular culture,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in what direction the formation of popular culture takes place. I think it w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this by recalling the contents from Kim, Chang-nam, who previously divided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r culture into three categories. How is popular culture formed? First, in the market connecting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popular culture is formed around products or contents. I think this concept is the most basic and direct concept for the formation of popular culture. Second, popular culture is formed by daily customs and emotions regulated by institutions, laws and policies. Third, popular culture is formed in a field of enjoyment that is newly reorganized by changes in technology and media. Fourth, popular culture is formed by differences in ideology and identity, and conflicts of political orientation and preference. We learned various perspectives on culture, civilization and popular culture. Can you grasp these concepts? It's okay if you don't understand them yet. I believe that as the lecture continues in the future, these concepts can be established more and more clearly in your mind.



The Fourth Session | Aesthetics, preference and ideologies in popular culture

This session is to learn about aesthetics, preference and ideologies in popular culture. I am sure you've heard about aesthetics in school. It's very convenient to use aesthetics anywhere. It can be expressed as 'aesthetics of drama'. It can be also expressed as 'aesthetics of novels'. The word aesthetics is often used before the word, 'art'. By the way, the aesthetics we learn in school seem to have a slightly fixed form. What I mean is the aesthetic value referred to in institutional education seems to be entirely aimed at a high-end culture. So, it is often the product of elitism. Regarding this, Adorno sai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erious music, in other words full-scale music and popular music. Since he critically looked at the attributes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ng consumption culture, and the attributes of the cultural industry that colluded with consumption culture, he evaluated the contents of today's popular culture in this way with a slightly more concerned voice. According to him, popular music is conventional, instilling pseudo-personality, and is too sensual at the same time. And he said that popular music promotes pleasure in a way which is infantile and gives similar experiences. What do you think about his saying? Do you agree with him completely? Of course, there's no correct answer. You might think this way. For example, musical is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for those who watch a lot of opera. Also, they will interpret music and music videos of current idol groups in another level. You can think there is an aesthetic gap among them or a gap in artistic achievement. However, in here, there are many distributed points we should think about. French sociologist Pierre Bourdieu said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one's socio-cultural status and his artistic taste. For example, The artistic environment between the person who was born poor and did not get educated properly, and the person who was born rich, was fully educated and enjoyed life, belong to a higher social class, and there could be a large gap. However, the artistic environment for the people who are rich, learned much, and belong to an upper class could be evaluated as better, superior art, or educated in this way. We should think about it. Is there absolute validity in the criteria for aesthetic judgment? I think it is the worst in education to fix the aesthetic value. This not only reinforces social discrimination, but also repeats and extends the aesthetic sense of existing society, older generations, or vested rights. New art can always be born. As new style of art which deviates from the standard of grammar and values appeared, and it can enthrall anyone. Each time, competition can newly take place in a cultural field, and the hierarchy of artistic values may change. Also, it is not necessarily thought of as a hierarchical relationship, but a relationship of horizontal diversity. So even though there is no absolute standard for aesthetic standards,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 perspective of the class who exerts great power in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reproducing culture will be perceived as more correct. So I believe the desirable



indicator of popular art aesthetics always needs to be reflected on. Let's take a look at how the aesthetics of popular cultural content should be evaluated. Matthew Arnold, who emphasized liberal arts through high-end culture, has been introduced earlier. According to him, perhaps Goethe and Shakespeare can be considered the best artists. However, songs of Queen, movies of Steven Spielberg, or to others, the Disney animation Frozen can be great art to change their point of view in life. We do not need to correct the perspectives of those who think this way. From here, I'd like to mention 'sincerity'. Actually,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the word, 'sincerity' academically. I think this concept should be researched in the future. One Korean popular culture researcher, Park, Seong-bong, while studying about the sincerity of pop culture, said that the aesthetics of pop culture depends on how the evaluation is judged at the start and end defines the concept of sincerity. "While the public is enjoying the cultural content, if you say, "I experienced sincerity, I felt sincerity from this", then you need to think about the value of the experience, and you need to think about it with sincerity." I think the research about the aesthetics of pop art should start from here. There is a noteworthy scholar, Walter Benjamin. Actually, Adorno and Horkheimer are called Frankfurter Schule. The theory created by the people of this Frankfurt Schule is called criticism theory. Walter Benjamin is belong to Frankfurter Schule in a broad sense as well as the school of criticism theory. Horkheimer or Adorno I mentioned before, They criticize the cultural industry for encouraging consumerism, and undermine a certain sense of high-end art and think that is better art to the public. Walter Benjamin thinks similar to them in a broad sense. For example, with the advent of technological replication, especially with the advent of photos and movies, they thought that the aura of the existing artwork that had one-time, originality might be lost. But Walter Benjamin had a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Charlie Chaplin was a comic stage and comic movie actor, and Picasso. You should know Picasso well. He lead the modernism movement in the 20th century, he was known for creating a form of art called cubism. However, they tried to put Picasso and Charlie Chaplin in the same line and compare them. Walter Benjamin focused that the way of the public's acceptance and enjoyment had been changed. He agreed that Chaplin and Picasso, also need to be discussed together. I think this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Popular art, when the public is added, then you might feel it is low quality or something like imitator. However, when you put them together and study it, then there might be a way to find a certain of sincerity inside of us. Now we need to figure out what is the preference in pop culture. It can be said "the modern society is the cluster of various tastes of a community". There are many terms to define modern society, the expression 'it is an era of pluralism and diversity' is also a concept that defines modern society very appropriately. It can be said that a society where respect for others' tastes and autonomous pursuit of one's own tastes that appear at the same time is a modern society. 'Preference community' then, refers to a group which shares a common hobby or taste', and popular culture has tend to be led by a complex preference community regarding the media, genres, stars or individual contents. You can think of A.R.M.Y, which I mentioned earlier. Michel Maffesoli said,



"Modern society cannot judge the longitudinal structure between large groups represented by class or status." He also said, "The horizontal structure of a small group, which is distinguished by individual identity and taste, is the biggest feature of modern society." Michel Maffesoli expressed in his book, "The Times of Tribes," Neo-tribalism", which describes the changes of modern society. It looks disordered, but it's playful when communities of preference full of genuine childlike fun are pursued to exert creative power, then the modern society can be much richer.

Then let's take a look at how the influence of the preference community is manifested today. The preference community sometimes appears as a cheerful peer culture. Or it can be formed based on one's favorite singer, movie or music. It can be said that they contribute to create new sensitivity. Depending on their activities and their active enjoyment process, they inspire some creative inspiration throughout members of society. Aesthetically, the flow of popular culture is created through the independent expression of common sense that Kant mentioned. The preference community could also contribute it. In conclusion, active participators who influence the formation and change of popular culture today, express some of their thoughts or taste through preference culture. Especially today, digital communication channels have increased rapidly. So, from the bottom, various preference communities are creating a dynamic culture, and I'd like to explain this is the most important expression of today's pop culture.

Now, let's learn about the ideology of pop culture. I'd like to define pop culture is a place where ideological competition and entanglement occur. After Marx, many scholars think a specific ideology is made and distributed by capitalists or the ruling class, and that it can change some geography. By the class who can produce value, which can be considered superior and rational, some scenes of society can be changed. According to Louis Pierre Althusser, his academic point starts with 'some collective ideology of the ruling class and some ideology of the subject class are distinguished.' He said, "The ideology of the ruling group is produced and distributed more systematically by state organizations or apparatus." This is the famous expression, 'ideological state apparatus.' So we should see that mass media can sometimes be a platform for spreading the ideology of the ruling class. Shall we talk about mass media more? Mass media is a means of formalizing to the public, what is more broad and more powerful, what is right, what is more beautiful, what is more sincere and what is better. When we judge good and evil, value, or true or false, mass media has overwhelming force. Because of this, to maintain integrity of criticism of the public sphere, the insight of the purveyor of pop culture is essential. Antonio Gramsci defines ideology as 'a thought and consciousness that unites a group,' and said, "Groups in society compete through their own ideology." So from his perspective, the field of popular culture is that various ideologies are fighting and competing invisibly, and it could be a competitive place where each ideology tries to hold the lead. It is called 'the hegemony conflict'. To give you a very simple example, my generation or the generation after me watched the competition between H.O.T and Zechs Kies fans for a long time in the pop music field. If you gather these examples, it can be said that this field of pop culture is full of

fighting and competition among ideologies. Yes, I will present cases that can show the conflict between ideologies, and conflict between hegemony. Korea is a divided country. Although the cold war system has ended, it is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is divided. As everyone may know, The Korea that you have come to know as Korea is actually South Korea, or the southern part of Korea. And North Korea was under communist rule for a long period, and use terms such as the Baekdusan bloodline. North Korea is a country with a political bloodline centered on a closure of this lineage. So recently, there were movies such as Northern limit line (Yeon-pyeong-hae-jeon) and 한반도 (Hanbando) in the Korean film industry. This is centered on the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movies dealing with border tensions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These movies are movies that may have conflicting political interests. So these movies in Korea are seen as a conflict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owers, in my opinion. So those who critique the movie positively on one hand will say "it was quite a good movie", and those who say "this movie is quite subpar", are starkly divided, so I believe there is a point of ideological conflict in these situations. So, then how should we enjoy popular culture? This may truthfully be the most important question. There are irrational ideologies reflected in individual areas of popular culture. Our society needs a way to overcome this with individuals enjoying culture in healthy ways. Those who critique or criticize popular culture say there are too many cliches that are too common. But through these common cliches, there are producers and manufacturers trying to make the audiences passive. So there can be a camp of thought that undermines these intellectuals. This needs to be filtered by intellectual thinkers. I also believe that some content which continues to reproduce the dominant ideology can exist. And there is an attitude that tries to increase success through imitation. There is a need for us to inspect these plans. So a way for us to know that culture is developing in a healthy way and we must have the gaze to spot these negative plans and can be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of if the public has awareness. Today's digital world is creating a new world of popular culture. We are creating active participants, and communities with active preferences. Cultural content with new values and more desirable ideologies are being created so we should be aware and monitor this with a watchful eye. We are not just people who passively accept culture, but creatively interpret new and better cultural content and we should be people who are conscious of this process. I kept running through the course breathless, so I think it's essential to review what we learned. I prepared this clas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popular culture in a narrow sense. Popular culture can be defined as 'a culture formed when mass-produced commercial content is collectively accepted through mass consumption'. Then the public can be explained as 'people who participate daily in culture,' and 'have heterogeneous anonymity and autonomous collectivity.'

By the way, this is my first class and I have one concern. There will be lectures for 10 weeks in the future. For the students overseas,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pop culture', 'culture'. 'civilization', 'aesthetics', 'preference', or 'ideology' may be easy, however, it might be difficult to understand about modern Korean history. As for me,



when I study foreign concepts or concepts in liberal art from overseas, I don't know where these concepts came from, or the cultural background of space-time, so I have difficulties to understand foreign concepts in liberal arts. So before I proceed with the 10 weeks of lectures, I need to explain Korean modern history, which will be necessary for foreign students. In the flow of Korean modern history, let me summarize the changing process of pop culture, contents of lectures from week 2 to 10, and explain it all in advance. Korea, especially, during the 20th century, went through the most dynamic and dramatic times. Therefore, I will divide the periods based on the changes of pop culture, and suggest the keywords of the times. First, Koreans express their own history as 'half a million years of history'. Geographically, Korea borders China, Russia and Japan. Until the transition to the 20th century, Korea had a dynasty state called the Joseon Dynasty. Joseon was founded in the 14th century, and it was maintained as a single state system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surrounding islands. Neo-Confucianism, or to be simple, Joseon is based on Confucianism, and Joseon had the characteristics of an absolute monarchy. In particular, I think it would be appropriate to say it was a blood-centered royal country. In terms of family names, the royal lineage of the Lee clan continued to rule for 500 years. The dynasty was divided into two classes: yangin (ruling class) and cheonmin (subject class). Practically, there were four classes: yangban (nobility), jung-in (middle class), sangmin (common people), and cheonmin (low class). So if you have an understanding of Joseon, then you can understand the times when pop culture started. Since the late Joseon Dynasty, or the mid-to-late 19th century, many problems had occurred. I'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following, especially, when local officials collected taxes above the legal level, and which a lot of corrupt acts were committed. That's why the pain of the people was increasing. And at that time, the power class did not actively engage in trade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Because of that, the people's resentment grew, since Joseon had a closed system to outside countries, while Japan accepted Western products of culture, and at the time, China was in the Qing Dynasty. so the socioeconomic level difference from the Qing Dynasty also began to arise. Since the mid to late 19th century, Externally, the situation of being conscious of the invasion of imperialism continued, while internally, there was the people's consciousness against feudalism, and led to a very burdensome situation for the power class. From this point, week 2 lecture will begin. From next class, I will give you a lecture under the topic of 'finding people and the birth of a public'. I chose the period between 1894 and 1910. This is considered the last 15 years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called the enlightenment period in Korea. The West influences starting flowing in from Japan. This is what led to the clash of cultures. Newspapers, magazines, trains and records started to imported into Joseon. Then, what did the people of Joseon think at the time? The events happening beyond their borders, and the scenes from abroad in comparison to Joseon were seen in comparative and contrasting views. The concept of a nation then materializes. Less than leading to the formation of popular culture, it would be correct to assume this period was measuring the potential of culture. In 1910, Joseon was combined to Japan by force.



It means that Korean people were in great trouble. On the other hand, the Western products of culture started coming into Korea full-scale through Japan. Since the products of culture were not imported directly from the West but through Japan, it would be correct to express 'in the process of passing through, Western cultures were refracted then entered.' Anyway, ironically, It could be said that 'Korean pop culture began in earnest due to Japanese colonial strength.' This happened from 1910 to 1931, for twenty years, it was a time when such processes continued to accelerate. At that time, department stores and radio broadcasting were introduced. In addition, a new culture of preference was created, such as the birth of a permanent movie theater. Of course, considering the size, it was not big for the preference culture at that time. Because from today's point of view, the idea of mass media, which has a powerful influence at the same time, had not completely matured. Therefore, the preference culture was small. However, it could be said that the active community of enjoyment began at that time. The period from 1931 to 1945 refers to the latter half of Japanese imperialism. From 1910 to 1945, was the Japanese colonial era for 35 years, During the years, I think the second half of the 15 years was an important time. At this time, the press-print novel printed overflowed. A new grassroots consumption culture was formed. And this music genre is one that Koreans still like. This was the process in which trot music was standardized. As for the field of pop art, such as plays, music, exaggerated sentimentalism, which is called 'sinpa (melodrama)', became popular. I think it reflects pop culture moved with the socio-historical situation at that time. Koreans refer to 1945 as gwangbok or haebang, which means Korean took back their national sovereignty. By the way, the independence in 1945 was not achieved by Koreans' effort who were colonized, but Koreans were freed from colonization because Japan lost the Pacific War. In other words, the independence abruptly occurred from external changes, you can understand it in this way. Because of this, the duties to establish the nation started without any preparation, and was solely on the Koreans' shoulder. However, the Korean war occurred, and a new military regime took control, and Koreans had to face turbulent times from 1945 to 1961. Perhaps students overseas will know, but Korea i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Korea. The time when the division began on the Korean Peninsula was right after liberation. Furthermore, South and North Korea started a war called the June 25 war or Korean War, in 1950, and it was a war between the same ethnic group. Since the same ethnic group had to get through the war, the scar was so deep in fixing the after-effects of division. In South Korea, the US army brought Western culture. I think it strongly influenced Korean pop culture. As Western civilization, especially American civilization came to Korea through the US army, the internal thoughts Koreans who lived with traditional values, led to what I would like to define as a time of considerable confusion. Next, the times from 1961 to 1972. Radio culture was in its heyday during this period. Also, TV broadcasting started. With the spread of radio and TV, was the time when mass media, what we think of as mass media now, was formed. With this, the acceptance culture was expanded. This time, from 1961 to 1972, was after the war, a certain amount of time passed, and was a time



when post-war restoration was taking place. So, in a situation where people's lives were more stable, it was a time when individual areas of popular culture were stabilized or activated. If you look in microscopic detail, At that time, the US Forces in Korea unit was the US 8th Army, and This was the time when musicians from the US 8th Army had already established themselves as the mainstream in Korean popular culture. When you look at the history of Korean cinema, it is called the prime years or Renaissance era, and the movie industry was activated at that time. I can say that that time was impressive in many ways. From 1972 to 1980, the military regime of Park Chung-hee showed permanent will in the seizure of power. Actually, Park Chung-hee government, April 19 pro-democracy movement in 1960, was a pro-democracy movement happening on April 19th, he threw a wet blanket on this pro-democracy movement and seize the power by military coup. He arose a military coup on May 16th the next year. After then,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seized power, and last for 18 years until 1979. So from 1972 to 1980 is the latter part of Park Chung-hee government. At this time, Park Chung-hee established many environments to seize power permanently. Because of that, I would like to express it as a time when oppressive rule reached its peak. Then, how did pop culture react to this time? Actually, pop culture was suppressed and highly regulated, which can be said led to the recession of pop culture. Therefore, overall, there were situations in which autonomy and creativity were difficult to express within popular culture, nonetheless, youth culture, such as acoustic guitar, blue jeans, draft beer, appeared from the bottom. So even though the time was so suppressed, or the time was one of inspection or prohibition, political history could not stop the stream of pop culture which was born from the bottom, Therefore, this time of unique youth culture, is one in which we need to look back. I think 1980 to 1987 is a bit of a historical period worth noting. Park Chung-hee government was overthrown after lasting 18 years. However, the following year, a soldier, Chun Doo-hwan, created a new military regime. He seized power by killing citizens. He started his government using an appeasement policy, which represented the 3S policy. 3S policy means Sports, Sex and Screen. He used a policy to make people look outside, hiding the political circle. Outside of pop culture, many contradictions happened in this time. We can easily notice that the situations of pop culture were distorted. This time has many points to be studied. From 1987 to 1997, it was a time when formal democratization and content democratization proceed together. Externally, the Cold War era was finished. Big changes were happening outside as well. Popular works of art, which were banned in Korea, were introduced to audiences. In addition, the detailed areas of popular culture were further divided according to a high commercialization strategy. In 1997, Korea went through a financial crisis and had to seek IMF bailout. Many events happened between '87 and '97, which Korea took a large economic toll during the end of this period. In regards to the reorganization of popular culture, it can be said that the IMF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 Lastly, the period from 1997 to present can be seen as a time where Korea developed into a IT powerhouse and highly developed digital culture. This is the time when the Korean wave that you know started. The Korean wave

first started in neighboring Asian countries, with bordering countries such as China or Japan, and if the development of the Hallyu wave centered around these countries, time passed and the wave spread beyond neighboring Asia, into the U.S., Europe and across the world. That's when the terms K-culture and K-contents were actively used. If you look in detail, you'll be able to distinguish the 1.0 to 4.0 era of the Korean wave. If you look at it separately, the Korean Wave has very fine inflection points, and you can see the Korean wave is still developing. When you follow the class so far, I am sure you can see how the Korean wave today connects to a long flow of Korean pop culture. Of course, when it comes to accepting and enjoying the Korean wave, you can often see works of extreme nationalism in the Korean wave. That's why I think the Korean wave today now has a task. So at the end of this class, I would like to mention the possibility of a win-win Korean wav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21st century, in the trend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we looked through the changes of Korean pop culture in summary. Even foreign students who love the Korean wave might not know Korean history, so I think you may feel this class is strange or sometimes difficult. When you follow the class thinking about Korean modern history and the flow of pop culture in the history which I just summarized, then I hope you can find some interesting points in this class. A country's popular culture is bound to proceed while talking to it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history. However, since politics, economies and societies are connected between countries and have many similarities, Korean popular culture doesn't have only a special and unique environment. So if you compare your own pop culture with what you already knew in Korean pop culture, then you will find interesting similar points and differences. I believe if you follow this lesson with curiosity, there will gain be something to gain.



The Fifth Session | Conclusion

Let me finalize today's lecture. Today's lecture seems to have been a little rigid. It's because I proceeded with the intention of understanding the general public based on specific concepts, which might have been a little difficult for you to accept. But as I told you in the beginning, When the concepts you learned today chronologically break out in the history of Korean pop culture, will develop interestingly in the future, it can be used very importantly. One of the K-content contents that received the most attention in 2021 was probably 'Squid Game'. I was also quite surprised to see the hit of Squid Game. The games seen in Squid Game were accepted from people all over the world. Red light, Green light', 'Squid Game', Dalgona game' and others are games I used to play when I was little. At this moment, I stopped and thought, "What was the sincerity of Squid Game?" "What on earth did people around the world feel that comes to Koreans with sincerity"?, I've had this kind of thought. People with different race, culture, nationality and ages, how do they participate in a culture of certain preferences that is being confirmed through Squid Game? I was very curious about it. I am sure new ideologies could be delivered in the process. New cultural points would be restricted and renewed. There are no correct answers to many questions around Squid Game. If you are a student who tries to understand today's lesson diligently, I think you might find some way to analyze Squid Game in various perspectives.

Okay, we are going to find the origin of Korean wave today. The background of K-contents' origin, which attract atten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be how we will figure out the origin through important incidents or scenes in Korean pop culture. From next class, certain people who should be mentioned in Korean pop culture history, next are scenes, products of culture which are newly accepted, technologies continuing to change and develop, and new media, will all be mentioned and we will take a chronological look. So next class can be considered the real start. Let me introduce next class briefly, where you will learn about the scenes and situations from 1894 to 1910, the times before Korean pop culture was formed. Are you excited? See you next class. Thank you.



Semaine 1: Les notions principales sur la culture populaire coréenne

1^{ère} partie | Introduction

La hallyu et les contenus coréens sont en plein essor. D'où, le titre du cours, « Origine et évolution de la hallyu : la culture populaire coréenne en mots clés ». Je suis Soongbeum Ahn, professeur au dpt. de langue et littérature coréennes à l'université Kyung Hee. Aujourd'hui, on va commencer par les notions principales sur la culture populaire coréenne. Le but est de comprendre la notion de culture populaire et les questions importantes autour. Mais aussi les différentes théories qui la concerne.

Questions clés d'aujourd'hui : « Qu'est-ce la culture populaire ? » et « Que doit-on étudier ? » Mots clés : public, culture, civilisation, esthétique, goût, idéologie. On va étudier ensemble pendant 10 semaines. Le cours d'aujourd'hui peut être un peu difficile. Parce que l'on essaiera d'y comprendre certaines notions que l'on continuera de rencontrer tout le long à partir du 2ème cours. Donc, suivez bien ce cours et afin d'apprécier plus en profondeur ceux à venir. J'espère que vous passerez un bon moment.

2^e partie | Qu'est-ce que le public?

Cette partie s'intitule « Qu'est-ce que le public ? » Pour comprendre plus facilement, commençons par l'histoire d'ARMY, le fanclub de BTS. L'une des caractéristiques d'un public est d'être une communauté partageant des goûts identiques. C'est une notion très importante et ARMY en est un parfait exemple. Même si'ils partagent les mêmes goûts, la nationalité et l'âge des membres d'ARMY varient. Voyons leurs caractéristiques. D'abord, sur le plan de la nationalité, du statut, de l'âge, de l'origine ethnique, du sexe ou de la classe sociale, on constate que ce n'est pas du tout homogène. Normalement, les fanclubs de K-pop se forment d'abord en Corée et s'étendent aux pays voisins comme le Japon, la Chine, l'Asie du Sud, etc. Et le plus souvent, ils sont composés de jeunes de 10 à 29 ans. Dans le cas des boysbands, la plupart des fans sont des femmes. Pourtant, ARMY est un peu différent. Américains, Européens, Sud-Américains... Les fans viennent de partout. L'âge montre aussi des disparités. Il n'est pas rare de voir des fans de plus de 30 ans. Et ARMY n'est pas réservée qu'aux femmes. Il y a en effet beaucoup d'hommes. Le point commun des membres d'ARMY est qu'ils n'ont pas de but conscientisé. Autrement dit, ce sont des individus anonymes. Plus précisément, c'est un groupe qui rassemble des anonymes. Sans BTS, ils n'auraient pas eu d'occasion de partager leurs idées ou de se parler. Historiquement, la création des fanclubs ou des fandoms partagent une particularité. Elle se passe toujours via les médias de masse comme la radio, la télé ou Internet. En fait, la manière et le processus de création est plutôt souple. Les fandoms ne se forment pas autour d'une classe sociale particulière ni d'adhérents à une certaine idéologie. ARMY s'est créé bien sûr par les médias comme la télé et Youtube, mais aussi par les nouveaux médias. Les réseaux sociaux ont particulièrement accéléré sa croissance.

ARMY, nous a montré les caractéristiques d'une communauté centrée sur un goût. Maintenant, on va regarder cela plus en détails. On va préciser ce qu'est la notion de public en la comparant avec quelques notions similaires. En fait, outre le type de public que l'on vient d'aborder, il existe un autre type de public. Celui qui existe sous forme de groupe d'individus non organisés. Ceux-ci participent aux débats publics et discutent des problèmes sociaux. Ils sont, selon tout vraisemblance, des contestataires rationnels. Le point marquant, est qu'ils recherchent l'intérêt commun. Ils apportent leurs idées pour contribuer à la société. Ce sont donc des acteurs sociaux qui participent plus aux débats publics conscientisés, pour le bien commun. Une autre notion similaire est celle de « peuple ». Cette notion s'est définie, sur le plan historique et idéologique, après la Révolution française. En général, le peuple désigne la classe dominée sur le plan politique, économique et culturel. Ou bien les défavorisés. Au sens strict, ce sont les acteurs conscientisés du réel. La démocratisation de la Corée du Sud a connu des moments difficiles et sombres. Différentes classes sociales ont lutté contre la domination injuste et son institutionnalisation. Bien sûr, toutes les classes s'y sont engagées, mais

c'est surtout le peuple qui était au cœur. On peut voir ainsi que les notions de public et de peuple se distinguent. Alors, quelle est la vraie définition du public ? Selon Yoojoeng Jang, experte de l'histoire de musique populaire, il désigne « la plupart des gens de la société moderne caractérisée par la production et la consommation de masse ». En somme, « un groupe de personnes unies et indifférenciées par leurs statut, classe, niveau d'études et de revenu ». Le peuple est donc un groupe hétérogène d'anonymes, un groupe autonome. Vous voyez un peu la différence entre toutes ces notions ? Dès lors, vous vous direz que vous aussi appartenez à ce l'on continuera d'appeler « public ».

3^e partie | La notion de culture

Cette partie sera consacrée à la notion de culture, de civilisation et de culture pop. En fait, la culture est un concept très large. Même les grands experts ne prétendent pas affirmer que leur définition est la seule correcte. Je vais donc vous en présenter une définition plutôt générale. En occident, quand on parle de culture, on commence souvent par son étymologie Généralement, c'est le mot latin « colere », qui veut dire « cultiver », « dominer », qui est considéré comme à l'origine de la notion de la culture. En anglais aussi, le mot « agriculture » comporte le mot 'culture' qui signifie « produire » et « faire pousser ». Certes, cela ne colle pas parfaitement au concept d'aujourd'hui, Mais on trouve ici un indice important. « produire » et « faire pousser » peuvent signifier « modifier » et « imiter la nature ou enore « créer ». Donc, le concept de « culture » peut être vu comme opposé à celui de « nature ». On peut aussi dire « barbarie ». C'est pourquoi il faut comprendre la notion de la culture de manière globale. La culture comprend toutes les créations humaines : politique, économie, droit, institutions, art, religion, coutumes, etc. En fait, tous ces concepts énumérés renvoient à « produire et faire pousser ». Selon Changnam Kim, chercheur sur la culture pop, « avec cela, la culture pop revêt trois caractères ». 1) La culture comme produit. C'est le premier caractère de la culture. Elle est créée par les médias de masse et distribuée en tant que produit aux nombreux consommateurs. 2) La culture du quotidien. Elle est en permanence acceptée par le public dans la vie quotidienne. 3) La culture comme lieu de débat politique où diverses indentités s'expriment et s'affrontent. Ça, c'est un autre point à réfléchir. Dans tous les cours, « culture populaire » indiquera toujours l'un de ces trois aspects. Il est important que vous vous en souveniez. Maintenant, il est temps d'aborder différents points de vue autour de la culture. D'abord, la culture est l'essence de la capacité de penser, de s'exprimer, et de l'esprit humain. Mattheu Arnold est un des principaux chercheurs à défendre cette idée. Il s'inquiétait de l'effondrement de la morale dans la société moderne après l'industrialisation. et pointait du doigt une augmentation du désordre. Selon lui, la culture traditionnelle de l'élite doit d'être transmise et la culture populaire réglementée. Theodor Wiesengrund Adorno et Max Horkheimer critiquent aussi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liée à la culture populaire. Ils déplorent la place des arts purs dans l'industrie culturelle. en voyant l'autonomie des artistes vouée à la destruction. Ils affirment que, dans cette situation, le public ne peut pas penser par lui-même. En un sens, ils ons tous raisons. Pourtant, si l'on accepte ces points de vue sans esprit critique, cela risque de conduire vers de l'élitisme. Hiérarchiser les choses, au nom de culture, de valeur spirituelle ou artistique plus élevées, etc., n'est pas toujours une bonne chose. Le deuxième point de vue propose de définir la culture populaire comme la réception et la jouissance en fonction de ses goûts. Edward Albert Shils et Herbert J. Gans soutiennent ce point de vue. Ils défendent la diversité culturelle et disent qu'il faut garder un « pluralisme culturel ». Je ne dis pas

qu'un de ces points de vue est correcte ou pas. Mais il est extrêmement important que vous ayez votre propre point de vue, Parce que vous vivez dans la culture populaire.

Maintenant, on va comparer « civilisation » et « culture » et relier cette réflexion à la culture populaire. la civilisation consiste en des conditions et base matérielles, institutionnelles et sociales. On dit souvent que la culture est « le fruit de la pensée humaine et un symbole social ». On peut dire que signes, valeurs, et même les produits de psychologie humaine font partie de la culture. L'art est l'exemple le plus simple pour comprendre la culture. Quand on lit Ernest Hemingway ou Victor Hugo, on consomme la valeur artistique et les accomplissements artistiques de leurs œuvres. On découvre aussi l'esprit qui réside à l'intérieur de ses œuvres. Rappelons ici la notion de civilisation. Même les fruits culturels de haute valeur comme les romans d'Hemingway, de Victor Hugo, ont besoin d'un système de distribution et d'édition, et d'usines pour les imprimer. On ne peut pas non plus oublier les librairies. Quand on pense à ces aspects matériels, institutionnels et sociaux, on se rend compte que culture et civilisation sont des notions liées. Donc, il est difficile de les séparer car elles sont toutes les deux le reflet de notre manière de vivre. Dans certains cas, ces notions sont synonymes. Plus strictement, la culture renvoie aux valeurs et aux phénomènes spirituelles alors que la civilisation renvoie à la base et au fondement matériels. Pour comprendre la notion de culture populaire, il est nécessaire de savoir comment elle se forme. Les trois caractères de la culture populaire définis par Changnam Kim, vus juste avant, nous sera utiles. Comment est formée la culture populaire ? Elle est formée... 1) Par l'ensemble des produits ou des contenus. sur le marché de la production et de la consommation de masse. Selon moi, c'est la définition la plus élémentaire et directe de la culture pop. 2) Par les coutumes et les mentalités sous contrôle des institutions, du droit ou du politique. 3) Par les nouvelles technologies et médias qui font évoluer constamment la sphère de la jouissance. 4) Par l'affrontement des diverses idéologies, identités, orientations politiques, goûts, etc. On a vu différents points de vue sur la culture, la civilisation et la culture populaire. C'est plus claire maintenant ? Si non, ne vous inquiétez pas. En suivant les cours, toutes ces notions vont sans doute s'éclaircir.

4^{ème} partie | Goût et à l'idéologie dans la culture

Pour cette partie, on va s'intéresser à l'esthétique, au goût et à l'idéologie dans la culture. Vous avez certainement entendu parler du mot « esthétique » à l'école. Ce mot va avec n'importe quel mot. L'esthétique des séries. L'esthétique des romans. Il s'utilise souvent avec des mots concernant l'art. En fait, on a une sorte de préjugé vis-à-vis de ce concept. La valeur esthétique que l'on apprend à l'école renvoie souvent à la haute culture, produit de l'élitisme. À cet égard, Adorno disait qu'il y avait un immense écart entre la vraie musique et la musique populaire. En critiquant l'industrie culturelle qui incite toujours à plus de consommation, il évaluait les contenus de la culture populaire comme suit : Banale, source de fausse personnalité, trop sensuelle, elle est puérile et provoque un plaisir trompeur. Êtes-vous d'accord avec cela ? Bien sûr, il n'existe pas de bonne réponse et on a le droit de penser cela. Aux fans d'opéra, la comédie musicale donnera une impression un peu différente. La musique et les clips des idoles seront encore plus étranges. On pourrait dire qu'il existe un écart entre eux en termes d'esthétique et d'accomplissement artistique. Pourtant, derrière cette idée se cachent divers points à réfléchir. Selon le sociologue français, Pierre Bourdieu, le statut socio-culturel d'une personne est étroitement lié à ses goûts artistiques. Par exemple, Si on compare une personne de classe défavorisée, moins éduquée avec une autre issue d'une famille riche, bien éduquée, et favorisée, faisant partie de la classe aisée, Il peut y avoir un grand écart en matière d'expérience d'artistique. Pourtant, l'art apprécié par les riches et les intellectuels, donc par la classe aisée, est souvent considérée comme plus supérieure et c'est ce que l'on apprend. Mais réfléchissons. Les critères de jugement artistique sont-ils absolus ? Je pense que la pire éducation est de n'apprendre qu'une seule valeur esthétique. En plus d'aggraver les discriminations sociales, Cela ne fait que de recopier et transmettre des valeurs artistiques établies, ou celles des anciennes générations ou de ceux qui ont du pouvoir. Une nouvelle forme d'art peut apparaître à tout moment et cet art, libérée des règles et des valeurs existantes, peut fasciner le public. L'apparition d'un nouvel art va créer de nouveaux lieux de compétition culturelle, et constamment changer l'ordre des valeurs artistiques. La relation entre les valeurs est aussi horizontale, ce qui garantit la diversité. Alors qu'il n'existe pas de critères absolus pour juger les valeurs, la vision de ceux exerçant une force dans la production et la reproduction culturelle est souvent considérée comme meilleure, plus juste. Il faut donc être capable de repenser régulièrement les indicateurs esthétiques pertinents de la musique pop. Alors, comment évaluer l'esthétique du contenu culturelle ? Comme vous l'avez vu, Matthew Arnold a mis l'accent sur l'importance de haute culture. Pour lui, peut-être, Goethe et Shakespeare seraient les meilleurs artistes. Mais pour certains, la musique de Queen, les films de Spielberg, ou bien le film d'animation La Reine des Neiges peut être des chefs d'œuvre qui changent la vie. Il n'est pas nécessaire d'essayer de changer leur point de vue. Je voudrais ici introduire le mot « authenticité ». En fait,



il est extrêmement difficile à définir sur le plan académique. C'est un concept qui doit être étudié davantage. Seongbong Park, chercheur sur la culture populaire coréenne, étudie l'authenticité de la culture pop et dit que son esthétique dépend de la manière d'interpréter cette notion. « Si la majorité du public dit avoir fait une expérience authentique, avoir ressenti de l'authenticité avec un contenu culturel, il faut alors réfléchir à nouveau à la valeur de cette expérience, et prendre cela plus au sérieux. » Voilà le vrai point de départ de l'étude sur l'esthétique de la culture pop. Je voudrais parler de Walter Benjamin. Adorno et Horkheimer que l'on vient d'aborder, font partie de l'École de Francfort, dont les membres sont à l'origine de la théorie critique. Au sens large, Walter Benjamin est aussi de cette école de pensée. Comme je l'ai dit, Horkheimer et Adorno critiquent l'industrie culturelle qui détruit le goût pour l'art de haut niveau, en incitant toujours à consommer plus. Walter avait des idées similaires. Par exemple, il pensait que les technologies comme la photographie et le cinéma avaient fait disparaître l'aura des œuvres originelles. Mais, en même temps, il avait un point de vue un peu différent que les deux autres. Au sujet du comédien et réalisateur, Charlie Chaplin, et de Pablo Picasso, j'imagine que vous connaissez bien Picasso, C'était le grand artiste du modernisme au XXe siècle, à l'origine du nouveau mouvement artistique appelé le « cubisme ». Walter voulait comparer Charlie Chaplin et Pablo Picasso sur un même plan. Il voulait dire que la manière d'accepter et de jouir de l'art chez le public avait changé et qu'il fallait parler de Chaplin de la même manière que de Picasso. Cela nous donne de quoi réfléchir. Quand on parle d'art populaire, il a l'air médiocre et on le considère comme une pâle imitation du reste. Pourtant, en l'étudiant à côté des autres formes d'art, Il est possible d'y trouver une authenticité qui reste en nous. Il serait intéressant de se pencher sur ce qu'est le goût dans la culture populaire. On peut dire que « la société moderne est l'ensemble de la diversité des goûts ». Il existe beaucoup d'expressions qui la définissent. Une autre bonne définition est « l'ère de la pluralité et de la diversité ». Donc, la société moderne poursuit à la fois le respect pour le goût des autres et la recherche libre des goûts personnels. Une « communauté de goût » rassemble des gens partageant les mêmes loisirs ou goûts. La culture populaire est souvent créée par une communauté de goût liée à un média, un genre, une célébrité, un contenu, etc. ARMY en est un bon exemple. Selon Michel Maffesoli, la société moderne a non seulement une structure verticale, caractérisée par les classes et le statut, mais aussi une structure horizontale centrée sur l'identité et les goûts, ce qui est sa plus grande caractéristique. Dans son livre *Le temps des tribus* Michel Maffesoli qualifie la société moderne adoptant le « néo-tribalisme ». La société moderne semble chaotique mais elle est aussi ludique. Selon ce point de vue, la société s'enrichit quand les communautés de goût font preuve de leur créativité dans leurs loisirs.

Voyons comment elles impactent notre société. Les communautés de goût prennent souvent la forme de « culture des pairs (peer culture) ». Cela peut se former autour d'un chanteur, d'un film ou d'un genre musical. Ces communautés contribuent toutes à créer de nouvelles sensibilités. Leur manière de jouir des contenus, donnent une inspiration créative à la société. La culture pop se forme par l'apparition de sens

commun, une notion établie par Kant. La communauté de goût y contribue. En conclusion, ceux qui jouissent activement de contenus culturels font apparaître leurs consciences et leurs préférences à travers la culture du goût. Aujourd'hui, on a beaucoup de plateformes dédiées à la communication. Grâce à elles et les communautés de goût, une culture dynamique se crée. C'est la plus grande caractéristique de la culture pop d'aujourd'hui.

Maintenant, on va aborder la notion d'idéologie de la culture populaire. Pour moi, la culture pop est un lieu formé par la compétition et le mélange des idéologies. Après Marx, beaucoup de chercheurs ont dit que les capitalistes et la classe dominante fabriquaient et diffusaient l'idéologie et que cela changeait l'ordre social. Cette classe, productrice de valeur et considérée comme supérieure et raisonnable, change le paysage de notre société. Louis Pierre Althusser déclarait : « l'idéologie de la classe dominante se distingue de celle de la classe dominée ». C'est le point de départ de son étude. « l'idéologie de la classe dominante est produite et partagée de manière organisée par les organisations ou les institutions publiques ». Ce sont les fameux « appareils idéologiques d'État ». Il faut garder à l'esprit que les médias de masse peuvent parfois se mettre au service de la classe dominante. Parlons plus des médias de masse. Ils sont un outil pour montrer au public des choses considérées comme plus correctes, plus belles, plus authentiques, plus morales. Il a un impact très oppressant sur le jugement de bien et de mal, le jugement de valeur ou le jugement de ce qui est vrai. Aussi, afin de garantir l'intégrité des critiques et des débats, les consommateurs de culture pop doivent faire preuve de discernement. D'après Antonio Gramsci, « l'idéologie représente les idées et la conscience qui unissent un groupe ». Il disait que « les groupes dans la société étaient en compétition idéologique ». Dans cette perspective, La culture populaire est un lieu de compétition pour les différentes idéologies qui veulent s'imposer les unes aux autres. On l'appelle souvent « conflit d'hégémonie ». Je vais prendre un simple exemple. Ma génération ou celle un peu en dessous a vu la compétition entre les fans des boysbands H.O.T et Sechs Kies pendant longtemps dans le milieu de la musique populaire. En voyant tous ces exemples, on peut conclure que la culture pop est une arène pour les idéologies. Voici des exemples où s'illustrent des conflits idéologiques ou hégémoniques La Corée est divisée en deux, n'est-ce pas ? Même si la Guerre froide est terminée,

la Corée est restée divisée telle quelle. Bon vous le savez très bien, mais la Corée que vous découvrez via la hallyu, c'est la Corée du Sud. Pour autant la Corée du Nord, pays qui maintient sa fermeture, cette dictature fermée et centrée sur la lignée du mont Paektu, existe, elle aussi. C'est ainsi que des films comme Northern Limit Line et Hanbando ont vu le jour dans le cinéma sud-coréen. Ces films traitent du conflit entre les deux Corées ou des tensions que la Corée provoque sur ses pays voisins. Ces films peuvent susciter une confusion sur ses intérêts politiques. En général, en Corée du Sud, Je crois qu'il y a un conflit d'interprétation entre le pouvoir conservateur et le pouvoir progressiste. Entre ceux qui disent que ce film est excellent et ceux qui le jugent de médiocre qualité, la séparation est plus que claire. Je pense que l'origine de cette fracture nette est d'ordre idéologique. Dans ce cas, de quelle manière doit-on jouir de

la culture populaire ? C'est probablement la question la plus importante. Il existe une idéologie dominante et irrationnelle que l'on retrouve dans différents secteurs de la culture populaire. Notre société a également besoin d'une communauté de goût et d'acteurs sains capables de surmonter cela. Les personnes qui critiquent ou méprisent la culture populaire disent qu'elle comporte trop de clichés. Mais il existe réellement des gens dont le but est de nous faire accepter passivement cette culture via les clichés qu'elle véhicule. Je pense qu'il existe des créations qui nuisent à la communauté goût pensante. Ainsi les gens à la recherche de plaisir qui réfléchissent doivent faire preuve de discernement. Des contenus recyclant les anciennes idéologies dominantes peuvent aussi exister. Cela nous montre comment certains souhaitent susciter le succès par imitation. Il faut faire une analyse de cela. Aussi, la preuve qu'une culture populaire se met en place de manière saine réside dans la capacité du peuple à discerner ces manipulations et productions négatives. La civilisation numérique d'aujourd'hui construit une nouvelle éthique dans la culture populaire. Elle forme des gens actifs et construit des communautés de goûts dynamiques. Il nous faut veiller à ce que les contenus culturels produits soient les vecteurs de valeurs nouvelles et d'une idéologie vertueuse. Il est de notre devoir de faire preuve d'une participation active et d'une analyse créative dans le processus de construction de contenus culturels nouveaux et de qualité, et de ne pas nous limiter à un rôle de consommateur sans esprit critique. On est allés un peu vite jusque là. Il va falloir du temps pour digérer tout ce qu'on vient d'apprendre et pour préciser la notion de culture populaire au sens strict. C'est « la culture formée par la consommation en masse de contenus commerciaux produits en masse ». Et le public désigne les personnes qui y participent quotidiennement, et qui consistent en un groupe hétérogène et autonome d'anonymes.

Pour ce premier cours d'aujourd'hui, je me suis beaucoup interrogé. En effet, je donnerai ce cours pendant 10 semaines. Pour les étudiants étrangers, il ne sera pas difficile de comprendre des notions comme culture populaire, culture, civilisation, esthétique, goût, idéologie etc. mais l'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de la Corée peut se révéler un peu compliquée. Moi aussi, j'ai eu des difficultés à comprendre les notions de sciences humaines que l'on étudie à l'étranger, parce que je n'en connaissais pas l'origine, et que je ne savais pas quand et où elles étaient nées. Donc, en préparant notre parcours de 10 semaines, surtout pour les étudiants étrangers, je voulais aborder brièvement l'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de la Corée. Je vais donc vous expliquer à l'avance les contenus des semaines 2 à 10 en résumant l'évolution de la culture pop dans l'histoire de la Corée. Pour la Corée, le XXe siècle a été l'époque la plus dynamique. Je vais diviser cette époque en plusieurs périodes et donner des mots clés pour chacune d'elles. Les Coréens appellent leur histoire « l'histoire d'une moitié de dix mille ans ». géographiquement, la Corée est enclavée entre le Japon, la Chine et la Russie. Jusqu'au moment d'entrer dans le XXe siècle, la Corée était gouvernée par la dynastie Joseon. Fondée au XIVe siècle, Joseon était une nation unifiée comprenant la péninsule coréenne et des îles alentour. C'était une monarchie absolue centrée sur le néoconfucianisme, ou le confucianisme, pour simplifier. Et c'était une monarchie par



lien du sang. La famille Yi a régné continuellement pendant 500 ans. En gros, la société était divisée en deux classes : les cheonmin (parias) et le reste. Et plus précisément en quatre : yangban (noblesse), jungin (classe moyenne), sangmin (classe inférieure à Jungin), cheonmin (paria). Sans connaître Joseon, il est difficile de comprendre le moment où la culture pop est née. À la fin de la dynastie, donc à partir du XIXe siècle apparaissent de nombreux problèmes. Le plus problématique est la corruption. Les fonctionnaires régionaux récoltent des impôts au-delà de la limite fixée par la loi. Cela pèse donc beaucoup sur le peuple. Pendant cette période, le pays n'échange pas beaucoup avec les pays voisins. Bref, en interne, les griefs sont nombreux et la Corée hésite à ouvrir ses ports vers l'extérieur. D'un autre côté, le Japon a accepté rapidement la culture occidentale. La dynastie Qing, la Chine de l'époque, l'a fait aussi. Ainsi, l'écart socio-économique entre Joseon et ces deux pays s'est accru. Par conséquent, dès la fin du XIXe siècle, Joseon ne peut pas ignorer le risque d'invasion impérialiste et en même temps, avec la montée de l'esprit antiféodal du peuple, la situation n'est pas du tout favorable à la classe dominante. Voici le point de départ du cours de la deuxième semaine. Le sujet du prochain cours est « découverte du peuple et naissance du public ». Entre 1894 et 1910, ce sont les quinze dernières années de la période Joseon. En Corée, on les appelle, la « période d'ouverture ». À ce moment-là, la culture occidentale fait son entrée, notamment via le Japon. Cela crée un choc culturel. Les journaux, les magazines, le train et les disques vinyles apparaissent. Alors, imaginez ce que le peuple de Joseon a pu penser. Les gens ont commencé à comparer leur pays aux autres, comme par exemple, ce qui se passe au-delà des frontières, et les différences de paysages. C'est ainsi que la notion de peuple se concrétise. On ne peut pas dire que la culture populaire est née à cette période, mais on peut trouver des signes de sa naissance. En 1910, Joseon est annexée de force par le Japon. Un grand malheur pour le peuple de Joseon. Mais, c'est aussi une occasion pour la culture occidentale d'entrer davantage dans le pays. Bien sûr, comme cela se produit par l'intermédiaire du Japon, il est plus juste de parler de « culture déformée ». En tous cas, ironiquement on pourrait dire que la culture populaire est née avec la colonisation japonaise. Ce phénomène a commencé dès 1910. Jusqu'à 1931, soit pendant 20 ans, la propagation de la culture s'accélère. Les grands magasins, les émissions de radio et les cinémas permanents sont apparus, et une nouvelle culture de goût se crée. Bien sûr, ce n'était pas la même échelle qu'aujourd'hui. Parce qu'il n'y avait pas comme aujourd'hui, de médias de masse avec l'immense influence qu'on leur connaît, dans cette société-là. Donc, la culture de goût n'existe qu'à petite échelle. Pourtant, c'était aussi la période où est né une communauté qui jouit activement de contenus culturels. la période de 1931 à 1945 est considérée comme la seconde moitié de l'occupation japonaise. L'occupation dure de 1910 à 1945, soit 35 ans d'occupation par l'impérialisme japonais de la Corée. Les quinze dernières années sont une période importante. Les ddakjibon connaissent un grand succès et une nouvelle culture de consommation apparaît. La musique préférée des Coréens, le trot s'installe comme genre musical à cette période. Et dans la plupart des arts populaires comme le théâtre et la musique, shinpa, le sentimentalisme excessif,



prospère. Cela montre comment la culture pop est étroitement liée à la situation sociale de son époque. L'année 1945 est celle de l'indépendance et de la libération. Les Coréens reprennent leur souveraineté. En fait, cette indépendance de 1945 n'est pas le résultat d'une lutte du populaire. La Corée n'était décolonisée qu'après la défaite du Japon lors de la guerre du Pacifique. On peut plutôt voir cela comme un événement survenu soudainement à cause d'un changement extérieur. Donc, les Coréens avaient cette mission de remettre leur pays sur pied sans aucune préparation. Malheureusement, peu après, la guerre de Corée éclate et un nouveau régime militaire se met en place. Entre 1945 et 1961, les Coréens vivent une période de bouleversement. Comme vous le savez déjà, la Corée est actuellement divisée en deux. La division a lieu juste après l'indépendance. En plus de cela, en 1950, éclate la guerre de Corée, cette guerre fratricide que l'on appelle la guerre du 25 juin. Cette guerre a tellement blessé les deux Corées que l'état de séparation s'est gelé tel quel. En Corée du Sud, l'arrivée de soldats américains est un vecteur d'entrée pour la culture occidentale. Je crois que cela a joué un rôle crucial dans la naissance de la culture pop. Les Coréens, qui ne connaissaient que les valeurs traditionnelles ont été vraiment bouleversés par cette vague de culture occidentale. Passons à une autre période, de 1961 à 1972. C'est l'âge d'or de la culture de la radio. On regarde les premières émissions de télé. Avec la démocratisation de la radio et de la télé sont nés les médias de masse que l'on connaît. Ainsi, l'acceptation de la culture se généralise. La période entre 1961 et 1972 est le moment où le pays se rétablit petit à petit, comme un certain temps s'est écoulé depuis la fin de la guerre. La vie du peuple se stabilise et divers domaines liés à la culture pop s'installent et prospèrent. Regardons cela plus en détail. L'armée américaine stationnée en Corée, était appelée la 8e armée des États-Unis. Les chanteurs ayant débuté leur carrière ici deviennent les stars de l'époque. Dans l'histoire du film coréen, cette période est enregistrée comme le premier âge d'or où la renaissance du film où l'industrie du cinéma se redynamise. On peut bien sûr conclure que c'est une période marquante. De 1972 à 1980, Chunghee Park essaie de devenir président à vie sous son régime militaire. Chunghee Park prend le pouvoir par coup d'état tout en sapant le mouvement du 19 avril, un mouvement de démocratisation qui a eu lieu le 19 avril 1960. Park fait un coup d'état le 16 mai de l'année suivante. Après la prise de pouvoir, Park maintient son régime pendant 18 ans, jusqu'à 1979. De 1972 à 1980, c'est la deuxième moitié de son régime. À cette époque, Park se prépare à prolonger son mandat. L'oppression du régime autoritaire atteint donc un niveau extrême. Comment la culture populaire répond-elle ? Durant cette époque, elle est persécutée et censurée. C'est un marasme pour la culture pop. La liberté et la créativité ne peuvent pas s'épanouir. Malgré cela, la culture des jeunes, caractérisée par la guitare acoustique, les jeans et les bières pression, commence à se former. Même si c'est une époque d'oppression, de censure et de tabou, la politique ne peut pas écraser la culture populaire. Il serait intéressant de regarder de plus près, selon moi cette période unique de culture des jeunes. La période de 1980 à 1987 est importante. Le régime de Park qui a duré 18 ans, prend fin. Mais, l'année suivante, le militaire Doo-hwan Chun établit un autre régime militaire. Il prend

le pouvoir en massacrant la population civile. Le régime de Chun applique une politique d'apaisement, appelée politique des 3S qui veut dire Sports, Sex, Screen, pour distraire le public de la politique. En même temps, on observe dans la société des contradictions et des situations où la culture pop est déformée. C'est aussi une période qui mérite d'être étudiée davantage. Pendant la période de 1987 à 1997, le pays se démocratise sur la forme et sur le fond. À l'extérieur, la guerre froide prend fin. Beaucoup de changements ont eu lieu autour du pays. Les Coréens peuvent enfin avoir accès aux produits de l'art populaire qui leur étaient interdits. Avec les stratégies de commercialisation, les domaines de la culture pop se subdivisent. En 1997, la Corée connaît une crise économique qui se termine par un défaut de l'état et une tutelle du FMI. Entre 1987 et 1997, la Corée a vécu de nombreux événements puis est sortie de cette période, ravagée économiquement. Concernant la reconstitution de la culture pop, La crise économique en Asie a eu un grand impact. Enfin, on va parler de la période allant de 1997 à aujourd'hui. La Corée développe les TIC et devient le numéro un du marché. et c'est durant cette période-là que commence la hallyu que l'on connaît. Si la hallyu commence d'abord dans les pays voisins tels que la Chine et le Japon, avec le temps, elle s'étend au-delà de l'Asie jusqu'aux États-Unis, en Europe et dans le monde entier. En même temps, des termes comme K-culture, K-contents apparaissent. On pourrait diviser l'évolution de la hallyu en générations allant de 1.0 à 4.0. La hallyu a vécu plusieurs tournants majeurs et elle est toujours en évolution. Si vous suivez ce cours jusqu'à la fin, Vous pourrez voir comment le courant de la culture pop a fait naître la hallyu. Bien sûr, en termes d'acceptation et de plaisir lié à la hallyu, on observe souvent un nationalisme excessif. C'est un défi à relever pour la hallyu. Pour le dernier cours, je pense à parler de la hallyu harmonisée.

Jusqu'à maintenant, on a vu brièvement l'évolution de la culture populaire dans l'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de la fin XIXe siècle au XXIe siècle. Les étudiants étrangers ne doivent pas être très familiers avec l'histoire de Corée. Ce cours peut parfois être dépaysant et difficile. Mais, si vous gardez à l'esprit le chemin de la culture pop que je viens de résumer, Vous pourrez trouver un intérêt à suivre ce cours. La culture pop d'un pays est toujours liée à son histoire politique, économique et sociale. Tous les pays sont liés à d'autres et partagent des points communs. Donc, la culture pop coréenne n'est pas une seule et unique culture particulière. En comparant la culture pop coréenne avec celle d'autres pays, vous trouverez beaucoup de points communs et de différences. Restez curieux et profitez bien de ce cours.



5^{ème} partie | Conclusion

Bon, il est temps de terminer. Le contenu d'aujourd'hui était un peu compliqué. Parce qu'on s'est concentré sur des notions. Cela a dû être un peu difficile à comprendre. Mais, comme je vous l'ai dit au début, ces notions vous seront utiles pour comprendre les événements intéressants dans l'histoire de la culture pop de Corée. L'un des contenus les plus marquants de 2021, serait Squid Game. La vague autour de cette série était vraiment impressionnante. Partout dans le monde, on voit que les jeux de la série grandissent en popularité et sont désormais à la mode. Un, deux, trois, soleil, le jeu du calamar, 'le Dalgona' etc. Ce sont les jeux auxquels je jouais souvent quand j'étais petit. Je me suis demandé Quelle est l'authenticité de Squid Game ? Les étrangers, ont-ils vraiment sympathisé avec cette authenticité autant que les Coréens ? Je voulais savoir comment il est possible que des gens de différentes origines, cultures, nationalités, âges participent à la même culture de goût. Dans ce processus, une nouvelle idéologie est diffusée et de nouveaux points de vue culturels sont proposés et renouvelés. Il n'existe pas de bonne réponse à toutes ces questions. Mais si vous avez bien suivi le cours d'aujourd'hui, vous aurez au moins la capacité d'analyser Squid Game de différents points de vue.

À partir du prochain cours, on va parler de l'origine de la hallyu. On va s'intéresser à la naissance du k-contents et trouver la source de la vague coréenne avec ses événements importants. Donc, lors prochain cours, on va commencer à apprendre l'histoire de la culture pop en regardant les personnages importants, les événements, les contenus étrangers acceptés, ainsi que de nouvelles technologies et plateformes. Ce sera le vrai point de départ de ce cours. Pour vous donner un peu plus d'informations, je vais vous parler de la période entre 1894 et 1910, juste avant la naissance de la culture populaire coréenne. J'espère que vous avez hâte. Je vous verrai au prochain cours. Merci.

